



## 2006년 국제유가를 좌우할 주요 변수와 전망

박복영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bypark@kiep.go.kr, Tel: 3460-1149)

### 주요 내용

- ▣ 금년 연평균 국제유가(WTI 기준)는 56~57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40%(16달러)나 증가한 수준임.
- ▣ 2006년에도 타이트한 원유수급구조와 정제시설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OPEC의 잉여생산능력(excess capacity)은 2006년에도 150만b/d 이내(이라크 제외)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작은 충격에도 국제유가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정제시설 부족문제도 계속되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WTI 가격상승을 유도하고 다시 중동산 원유가격을 인상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이런 상황에서 2006년 국제유가수준을 좌우할 5대 변수는 미국 경기, 중국 연료세 도입, 이란 핵문제, 이라크 정세, 허리케인 피해라고 할 수 있음.

  - 계속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2006년 미국 성장률이 3.3%를 넘어서면 유가는 상당한 상승압력을 받는 반면, 2%대면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도입을 결정한 연료세를 2006년 중에 실행하면 유가는 하락압력을 받게 되는 반면, 이란이 석유를 핵문제와 연계하면 세계석유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 기준 케이스(미국 성장률 3.0~3.2%, 중동불안 현수준 유지, 소규모 허리케인 피해)의 경우 WTI는 배럴당 60±3달러, 두바이유는 50±3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성장률이 3.3%를 초과하는 등 고유가 케이스가 되면 WTI 기준으로 연평균 최고 80달러에 이르고, 저유가 케이스라도 연평균 48달러 이상은 될 것으로 전망됨.

# 1. 2005년 유가 동향

## 가. 최근 유가 동향

■ 금년 3/4분기에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에 대응한 IEA의 비축유 방출이 시작된 9월 초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카트리나로 인해 멕시코만 석유시설이 파괴된 8월 5주에 국제유가(WTI 현물 기준)는 장중 70달러를 돌파했으며 주평균 68.4달러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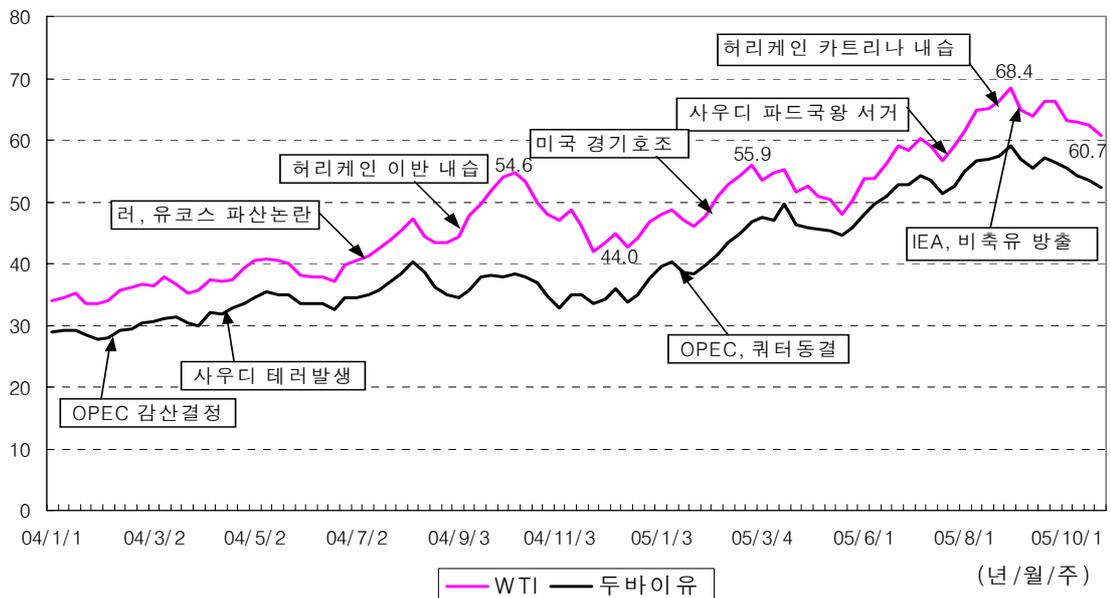
※ 초대형 허리케인인 카트리나로 인해 멕시코만의 원유 생산에 150만b/d의 차질이 발생했으며 그 후 리타의 영향까지 겹쳐 현재도 약 100만b/d의 생산차질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IEA 회원국들은 9월 2일 30일간 하루 200만 배럴씩 총 6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함.

- IEA의 비축유 방출 결정 이후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10월 4주 현재 국제유가는 60.7달러로 2개월 사이에 약 8달러(12%) 하락함.

그림 1. 국제유가 동향(2004~05년)

(단위: 달러/배럴)



## 나. 2005년 국제유가 급등원인

- 2005년 연평균 국제유가(WTI 기준)는 56~57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40%(16달러)나 증가한 수준임.

표 1. 2005년 국제유가의 변동

(단위: 달러/배럴)

유종	2004년			2005년					변동 (B-A)
	상반기	하반기	연평균 (A)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평균 (B)	
두바이	31.4	35.9	33.6	41.8	48.0	55.5	54.4	49.9	▲ 16.3
WTI	36.8	46.1	41.4	50.2	53.1	63.2	62.8	57.3	▲ 15.9

주: 2005년 4/4분기 및 연평균은 10월 4주까지의 값임.

- 2005년 국제유가 급등의 근본원인은 OPEC의 잉여생산능력 부족이라는 타이트한 수급상황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기호조, 중동불안, 정제시설 부족, 허리케인 피해 등 네가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미국 경기호조: 상반기에 미국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호조를 보였고, 5월에 소프트 패치(soft patch)에 대한 우려도 잠시 있었지만 건실한 성장이 예상되면서 세계 석유수요와 유가상승을 강하게 견인함.
- 2005년 미국 경기가 3% 내외의 성장률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3.8%와 3.3%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함.
- 7월까지의 국제유가 상승분 중 적어도 10달러 내외의 상승은 미국 경기호조로 인한 석유수요 증가요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정제설비 부족: 세계 전체적인 정제설비 부족으로 정유공장 가동 차질이 빚어지면서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초래되고, 그 결과 원유가격까지도 인상되는 연쇄효과가 발생함.
- 특히 미국의 정제가동률이 실질적인 full 가동수준인 95%를 상회하면서 7월 이후 정유시설 가동중단사태가 빈발함.

※ 1979~2005년 동안 세계 석유수요는 2천만b/d가 증가(6,400만b/d→8,400만b/d)했지만, 정제능력은 500만b/d 증가(8,000만b/d→8,500만b/d)에 그쳤음.

- 7월 초~8월 말 동안의 유가상승분 10달러 중 적어도 7달러 내외는 정제설비 부족과 가동차질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허리케인 피해: 8월 말의 카트리나와 9월 중순의 리타로 멕시코만 원유생산이 큰 타격을 입어 국제유가의 급등이 초래될 수 있었지만, IEA의 비축유 방출로 상승세가 진정됨.

- 멕시코만은 150만b/d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데 1달여간 평균 80%의 생산차질이 빚어졌으며, 10월 말 현재도 약 65%(100만b/d)의 생산차질이 지속되고 있음.

- 만약 IEA의 개입이 없었다면 허리케인으로 인해 최소한 10달러의 유가상승요인이 발생했겠지만, 10월 말 현재 유가는 허리케인 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여 IEA 비축유 방출이 약 12달러의 유가인하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됨.

※ 2004년 허리케인 이반의 영향으로 WTI와 두바이유간 가격차가 최대 17달러까지 상승하였는데, 그 전에는 차이가 약 7달러였음을 감안하면 허리케인 효과가 최소 10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함.

■ 중동정세 불안: 중동정세 불안은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2004년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이라크사태 악화, 사우디 국왕 사망, 이란 핵문제 악화가 3달러 내외의 유가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됨.

표 2. 2005년 주요 요인별 국제유가(WTI 기준) 영향

상승요인 영향				하락요인		합 계
상반기 美, 경기호조	정제설비 부족	허리케인 피해	중동정세 불안	IEA비축유 방출	하반기 美, 경기둔화	유가상승
↑ 10달러	↑ 7달러	↑ 10달러	↑ 3달러	↓ 12달러	↓ 2달러	↑ 16달러

자료: KIEP 자체 추정.

## 2. 2006년 국제유가 5대 변수

### 가. 미국 경기

- 2006년에도 미국의 경기와 그에 따른 석유수요 변화가 국제유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2003~04년에는 중국의 석유수요 급증이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 중국요인은 시장에 이미 반영되었고 증가폭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은 세계 전체 석유수요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 원유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 석유수요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그림 2 참고).
- 국제유가가 수요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최근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유가상승률간에도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그림 3 참고).
- 특히 미국산 WTI의 선물가격이 국제유가를 확실히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석유수요 동향이 국제유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그림 2. 미국 성장률과 석유소비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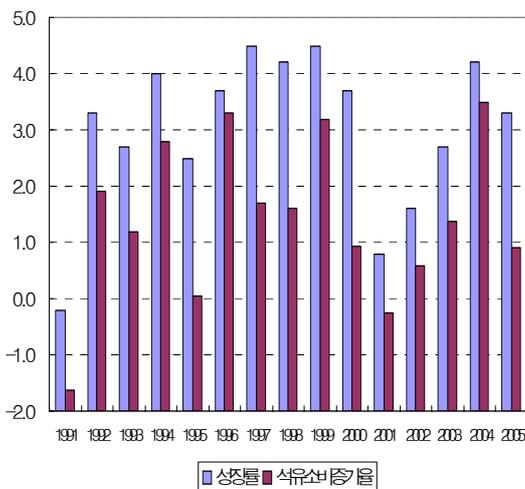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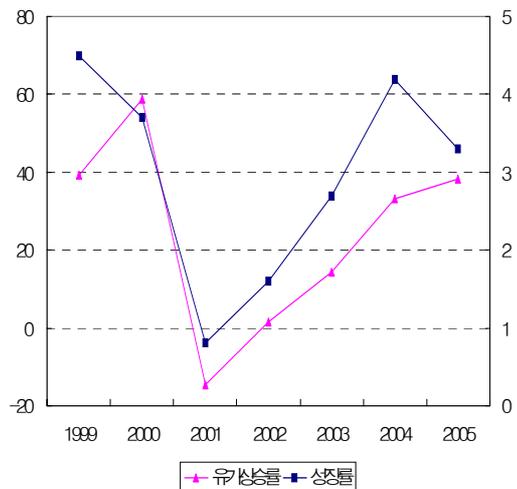


그림 3. 미국 성장률과 국제유가상승률



- 2005년 4/4분기 이후 고유가의 영향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물가상승과 이에 대응한 금리인상이 미국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건임.
- 2005년 9월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1.2% 상승하여 1980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여 가속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음.
- 2006년 중반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4.5~4.75%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저금리 시대의 종말이 미국 경기를 얼마나 진정시키느냐가 국제유가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2006년 미국 성장률이 3.3%를 넘어서면 국제유가는 상당한 상승압력을 받는 반면, 2%대의 성장률이면 하락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성장률과는 관계없이 금리인상은 원유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억제하고 달러화 환율을 상승시킴으로써 미세하지만 국제유가의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 나. 중국의 연료세 도입

- 중국의 석유소비 증가요인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분간 석유소비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여 국제유가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2005년 석유소비량이 670만b/d로 세계 2위의 소비대국인데, 2003년 이후 소비가 급증하면서 고유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하지만 최근 중국정부는 고유가와 에너지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강력한 에너지절약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에너지절약정책과 고유가의 결과 2005년 9% 내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석유소비는 약 40만 b/d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전년 증가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규모임.
- ※ 석유소비의 소득탄성치도 2004년 1.8에서 2005년 0.6으로 급락하였는데, 중국정부는 이 수준을 장기적 목표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 중국은 최근 석유소비 절약을 위해 자동차용 연료에 대한 연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입되면 국제유가의 중요한 하락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휘발유와 디젤유에 연료세 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200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유가급등으로 시행을 연기하고 있음.
- 고유가에 연료세까지 부과될 경우 기업의 생산비 가중과 물가상승이 우려되며, 특히 최근 급 성장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하지만 중국 당국의 연료세 부과 원칙은 확고하며 적정한 시기만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급등이 진정되면 2006년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음.
- 2004년 현재 중국의 국내 석유가격은 디젤이 리터당 43센트, 고급휘발유가 리터당 48센트로,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아시아국가 중 거의 최저수준임.
- 전체 석유소비 중 30% 이상이 운송용이며, 최근 고유가로 국내 자동차 판매가 감소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연료세 부과는 상당한 석유소비억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중국의 성장률과 석유소비 증가

(단위: 만b/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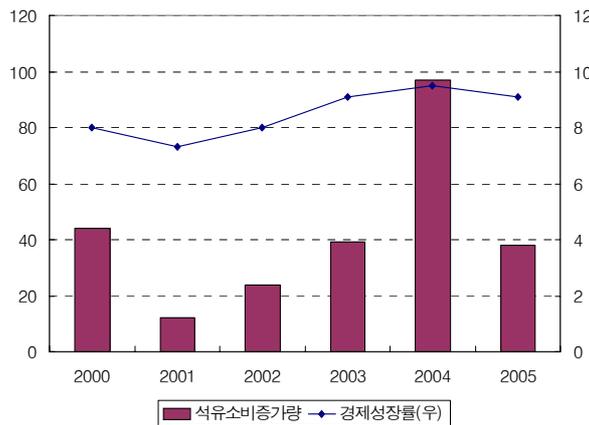


표 3. 주요국의 국내유류가격(2004년)

(단위: 센트/리터)

	디젤유	고급휘발유
중국	43	48
러시아	45	55
인도	62	87
브라질	49	84
미국	57	54
대만	55	71
한국	95	135

## 글상자 1. 중국의 자동차 보급과 석유문제

### ▶ 중국의 자동차 보급과 석유소비

중국 국가통계에 따르면 2003년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2,400만여 대이며 이 중 개인소유 차량량은 약 50%인 1,219만 대이고 개인소유 승용차는 846만 대로 나타났다. 중국내에서 자동차 보유량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시로 2004년 7월 말 현재 222만 대로 평균 14명당 1대의 자동차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약 70명당 1대 정도의 자동차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지난 10년간 약 3배가 증가하였으며, 개인승용차는 약 6배가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자동차 보유대수가 3배 이상 증가하여 2015년에는 1억 대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중국의 수송용 석유소비량이 향후 연평균 5.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 예측대로라면 2025년 중국의 수송용 석유소비량은 현재 미국의 절반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전체 석유수요증가량의 약 2/3가 수송용 수요증가에서 비롯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중국의 석유가격정책

중국은 석유를 국가 주요 전략물자로 설정하여 정부가 직접 가격통제를 실시하였으나, 1993년 석유의 순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가격정책을 개혁하여 1998년부터 국제유가 연동제를 실시하였다. 2001년에는 가격개혁을 확대하여 국내산 원유가격을 아시아, 유럽, 북미의 평균가로 조정하였고, 석유제품가격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각 지역별 기준가격을 고시하면 정유회사(Petro-China, SINOPEC)가 상하 8%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소매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3년 사스 발생 이후 중국정부는 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해 국제유가 연동제를 잠정적으로 중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중국내 석유가격과 국제유가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 디젤과 휘발유 가격은 1998년 이전 리터당 각각 25센트와 28센트에서 2000년에는 45센트와 40센트로 급격히 인상되었고 그 이후에는 국제유가에 따라 소폭 등락하였다.

현재는 휘발유와 디젤유에 대해서는 소폭의 소비세가 석유제품 생산자 혹은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데, 무연휘발유는 리터당 0.2위안(약 25센트), 유연휘발유는 0.28위안, 디젤유는 0.1위안의 세율이 적용된다.

## 다. 이란 핵문제

- 2005년 8월 이란의 강경보수파인 아흐마디 네자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핵개발을 재개하면서 이란의 둘러싼 국제정세와 이란의 석유정책이 매우 불투명해졌음.
- 이란은 핵개발 중단에 관한 EU 3국(英, 佛, 獨)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8월 핵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EU와 미국은 9월 IAEA를 통해 이란 핵문제의 UN 안보리 회부를 추진하였음.
-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안보리 회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IAEA 사무총장에 의한 회부 검토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EU와 미국이 안보리 회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석유의 무기화를 수차례 언급하고, 10월 초에는 이란 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석유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경고하였음.
- 만약 이란 핵문제가 UN 안보리로 회부되고 그에 대응하여 이란이 석유수출을 일부 중단할 경우, 세계석유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됨.
- 이란의 석유생산량은 약 400만b/d로 OPEC 국가 중 사우디에 이어 2위이며, 이 중 약 170만 b/d를 유럽 등 OECD 국가에 수출하고 있음.
- UN 안보리에서의 경제제재 결의나 이란의 석유수출 전면중단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서방의 압박에 대응한 부분적인 석유무기화 조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 이란은 1차 오일쇼크의 원인이 된 아랍의 석유금수조치(1973년)에 참여한 바 있으며, 2차 오일쇼크의 원인이 된 호메이니혁명(1979년) 때는 석유수출이 전면 중지되기도 하였음.
- 석유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석유를 핵문제와 연계시키는 이란의 어떤 조치도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국제유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그림 5. 이란 석유생산량 추이

(단위: 만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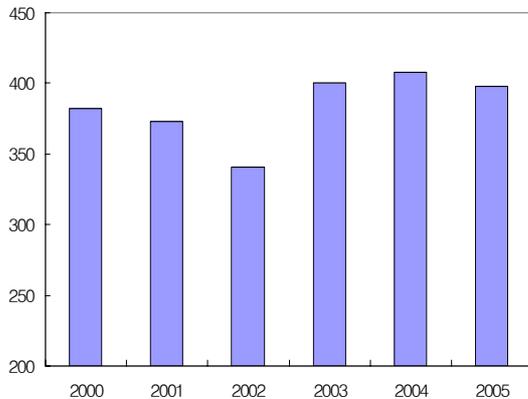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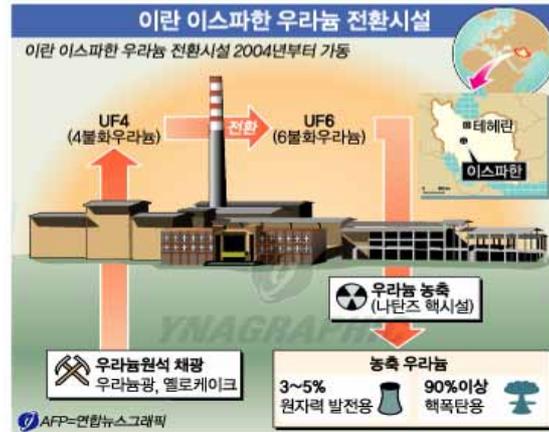


그림 6. 이란 핵개발 현황 개념도



## 라. 이라크 정세

■ 10월 말 이라크 새 헌법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지만 향후 종족간 대립은 더욱 첨예화되고, 2006년에 미군 감축이 시작되면 치안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종족간 분할에 기초한 연방제를 상정하고 있는 헌법안을 마련한 이후, 미군에 대한 저항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간 대립 혹은 내전의 양상으로 악화되었음.

- 정치권력과 석유수익에서 배제된 수니파는 총선 등 정치일정 참여 거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저항세력은 시아파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하고 있음.

- 새 헌법안에 따르면 석유수익이 지방정부에 귀속되므로, 유전지대가 거의 없는 중서부주에 거주하는 수니파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함.

※ 헌법안 국민투표에서도 중서부 3개 주의 반대비율은 55~96%로 찬성률이 97%에 이르는 시아파나 쿠르드족 거주지역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임.

■ 만약 이라크 상황이 내전상황으로 확대되고 석유시설 파괴가 저항세력의 목표가 될 경우 국제유가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이라크는 190만b/d의 석유를 생산하여 150만b/d를 수출하고 있는데, 정국불안과 자원

부족으로 전쟁 전에 비해 50만b/d 정도 적게 생산되고 있음.

- 이라크는 OPEC 전체 잉여생산능력의 약 1/3을 보유하고 있어 정정이 안정되어 생산이 증가 되면 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최근 석유생산 증가추세가 내전으로 인한 석유시설 파괴로 반전되면, 산유량 및 수출량이 감소하여 국제유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

그림 7. 이라크 헌법안 국민투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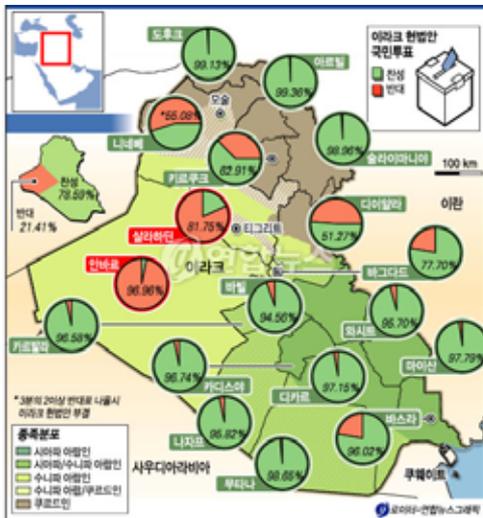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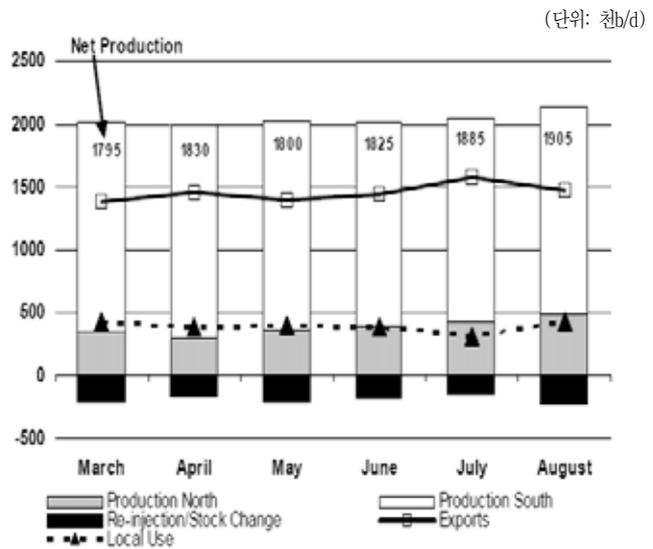


그림 8. 이라크의 석유 생산 및 수출량



### 마. 허리케인 피해

- 2004년과 2005년 연이은 허리케인의 피해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였는데, 허리케인 피해의 확률이 최근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2004년 허리케인 이반 때는 멕시코만의 석유시설 파괴로 약 10달러의 유가가 상승하였고, 2005년 카트리나와 리타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큰 상승요인이 있었지만 IEA의 비축유 방출로 대응함.
-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상승(엘리뇨 현상)으로 허리케인의 강도가 강해지는 추세에 있어 2006년에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조지아텍의 분석에 따르면 초대형 허리케인이 1970년대에는 한 시즌에 10개 정도 발생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18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허리케인 피해 영향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멕시코만에 추가적인 허리케인 피해가 발생하면 큰 폭의 국제유가 상승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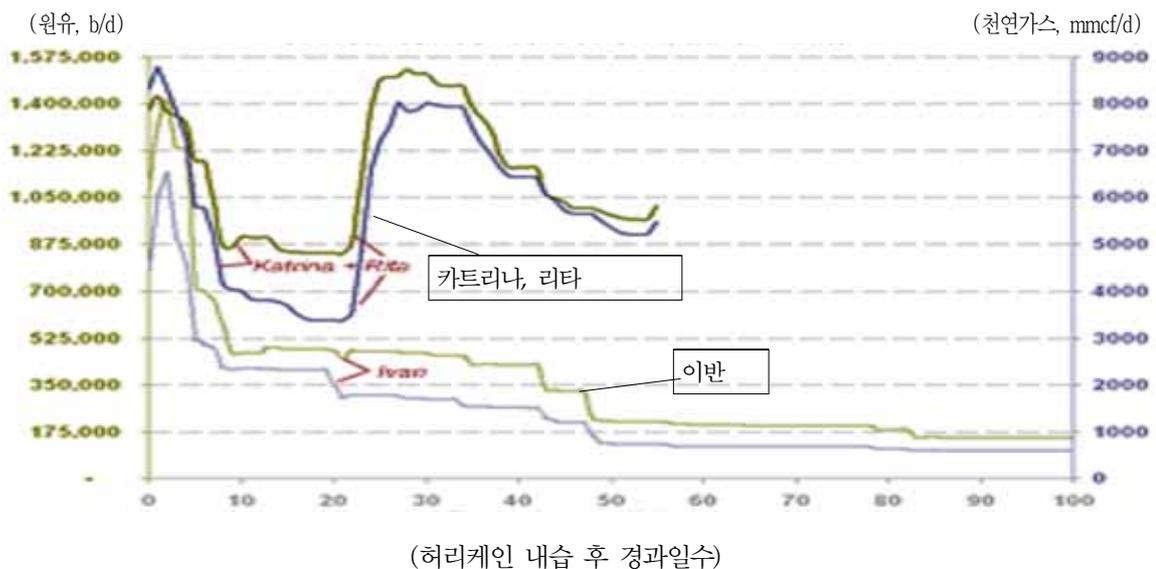
- 2004년의 경우 피해가 80%까지 복구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이 소요되며, 유가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데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됨.

- IEA에 따르면 카트리나와 리타의 영향은 1년 이상 지속되어 2006년 미국 산유량이 연평균 30만~40만b/d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이런 상황에서 2006년에 허리케인 피해가 추가될 경우 IEA가 비축유 방출과 같은 긴급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유가는 80달러를 초과할 수도 있음.

※ 미국은 고유황 중질유의 정제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멕시코만 산유량이 감소하면 WTI 가격이 주로 상승하지만, 가격선도효과 때문에 두바이유 등 다른 유종도 부분적으로 동반상승하는 경향이 발생함.

그림 9. 허리케인으로 인한 멕시코만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차질 규모



자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 3. 2006년 유가 전망

-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요인이 2006년 국제유가 결정의 변수라고 한다면, 타이트한 원유 수급구조와 미국의 정제시설 부족은 국제유가 결정의 상수라고 할 수 있음.
- 타이트한 원유 수급상황으로 인해 OPEC의 잉여생산능력(excess capacity)은 2006년에도 150만b/d 이내(이라크 제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IEA은 2006년에는 세계 석유수요가 180만b/d 증가하는 반면, 비OPEC 산유량은 130만b/d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균형을 위해서는 OPEC이 50만b/d를 더 증산해야 함.
- 따라서 OPEC의 생산능력이 최대 70만b/d 증가하여도 잉여생산능력은 현재보다 20만b/d 증가하는 데 그치며, 러시아나 아프리카 등 비OPEC의 생산이 예상만큼 증가되지 않으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음.
- 정제가동률이 95%를 넘는 미국의 정제시설 부족문제도 2006년에 계속되어, 석유제품가격 상승이 원유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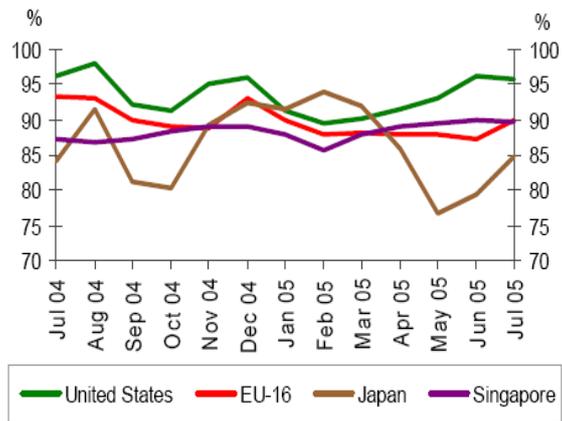
표 4. 세계 석유 수급 전망

(단위: 백만b/d)

	2005년	2006년
총수요	83.5	85.3
OECD	49.9	50.3
북미	(25.6)	(26.0)
비OECD	33.6	34.9
중국	(6.7)	(7.1)
기타 아시아	(8.7)	(9.0)
총공급	-	-
비OPEC	50.6	52.0

자료: 국제에너지기구(IEA)

표 10. 주요국 정제설비 가동률 현황



자료: OPEC

- 타이트한 원유수급구조와 정제시설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2006년에도 기본적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수준은 5대 변수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중동 걸프지역과 러시아 등의 생산능력 확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미국의 경기가 올해보다 소폭 둔화되면 2006년도 국제유가는 현재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거나 중동정세 악화, 허리케인 피해 등 불안요인이 가중되면 WTI 기준 유가가 8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음.
- 반대로 중동 정세가 안정되고 미국 경기가 크게 둔화되어 석유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도, OPEC의 적극적 감산이 예상되므로 국제유가는 40달러대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표 5. 2006년 시나리오별 유가 전망

시나리오	내 용	WTI 유가	두바이 유가
고유가 케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성장률 3.3% 이상</li> <li>• 이란 핵문제와 석유 연계</li> <li>• 허리케인 피해 발생과 비축유 방출</li> </ul>	75±5달러	62±5달러
기준 케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성장률 3.0~3.2%</li> <li>• 중동정세 불안 현 수준 유지</li> <li>• 심각한 허리케인 피해 미발생</li> </ul>	60±3달러	50±3달러
저유가 케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성장률 2.5~3.0%</li> <li>• 중국 연료세 도입</li> <li>• 산유국의 테러 및 파업 미발생</li> </ul>	50±2달러	43±2달러

※ 2006년 평균유가에 대해 10월 현재 CGES(영국 세계에너지센터)는 58.5달러(브렌트유), CERA(미국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는 55.0달러(WTI), EIA(미국 에너지정보청)는 64.5달러(WTI)의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음.